

[T-9]

전태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관리자가 되는 법을 배우며 자란 세대의 변

[T-9-1] 편집자니 당연히 잘 하겠지(?) [T-9-2]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일 [T-9-3] 과연 내가 전태일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T-9-4] 분리된 또는 분리하는 세대 [T-9-5] 1.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1,2차 산업으로부터의 분리 [T-9-6] 2. 직업의 귀천을 가리게 되었네요—노동과 관리의 분리 [T-9-7] 3. 수치로 표현하는 게 가장 편하니까—감정의 분리 [T-9-8] 4.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까—일과 삶의 분리 [T-9-9] 5. 소비되는 숭고함—정치와 삶의 분리 [T-9-10] 우리 세대의 점은 선이 될 수 있을까 [T-9-11] '글로벌' 시대의 노동

[전윤희]

전윤희 | 음악 선생님, 『객석』 기사를 거친 후, 2017년부터 수류산방의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2019년 한국을 떠나 여러 곳을 다녔다. 지금은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작업을 한다. 2015년 '화음평론상'을 수상했으며, 최근 여행 산문집 『별것 아닌 것』(연두, 2020)을 펴냈다.

[T-9-1]

편집자니 당연히 잘 하겠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 하려 한다. 편집자니 당연히 많이 알겠지, 잘 하겠지 하는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아는 것을 늘어놓으며 우리 세대에 전태일 열사의 정신이 도처에 남아 있다는 포장을 하지 않겠다. 대신 내가 이 책을 맡았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작업하며 드는 의문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반성을 했는지 터놓고 말하려 한다. 객관적인 작업 보고라기보다는 나의 마음 상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정도에 가까울 것이다. 읽다 보면 뭐 이런 사람이 편집집을 다 맡았어? 할지도 모른다. 그런 부끄러움을 안고 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이 작업이 나의 삶과 나의 세대, 그 세대의 이데올로기 안에 젖어 당연히 생각했던 것들을 깨어 주고 반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 끝에 전태일의 마음이 있었다. 50년 전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삶을 반성하게 만들고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들었다니, 이렇게 세상은 천천히 변해 가는지도 모른다.

이 일을 맡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전태일에 대해 그리 자세히 알지 못했다. 한국의 노동 운동에 대해서도 그렇다. 물론 그가 봉제 업계의 부당한 노동 현실을 알리려 분신 자살한 열사라는 것은 알았다. 머릿속에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박광수 감독, 1995년] 영화 포스터를 본 기억과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등의 강렬한 슬로건, 청계천의 전태일 다리를 걸었을 때 본 설명 정도가 섞여 있다. 따로 배운 기억이 없는 걸 보면 학교에서 보고 들었던 뜻일 텐데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는다. 어쩌면 학교에서 숙제나 독후감 등을 내어 줬을 확률도 있지만 인터넷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전태일을 주제로 무엇을 쓰라고 주면 그 때처럼 인터넷을 보고 적당히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를 마음으로 설명하지는 못하는 정도였다.

전태일 50주기 기념 도록 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맡게 된 날,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창신동. 대학 시절 그곳에서 봉제인 자녀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다. 퇴근이 늦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센터가 문을 닫는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갔다. 깜깜한 저녁 책가방 멘 아이들이 창신동, 신당동, 송인동 집으로 흩어졌다. 제기동에 사는 여덟 살짜리 민재를 차마 혼자 보낼 수 없어 같이 버스를 타고 신설동의 아빠 공장까지 데려다 주곤 했다. 가정집 공장이었다. 입구는 작고 허름했고 안에서 비쳐 나오는 형광등 불은 약했다. 생각해 보면 전태일이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던 그 시대의 현대 버전 최전선에 있었던 것인데, 당시에는 내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몰랐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지?’ 하다가 그제 ‘일이 많은가 보지.’ 했다. ‘돈은 제대로 받고 일하시는 걸까? 근로 환경은 괜찮은 걸까?’ 생각지는 못했다. 그제 아이가 안 됐을 뿐. 그들의 고된 노동 환경은 다른 세계 일이라 여겼던 것 같다. 돌이켜보니 십 년 전의 나의 태도와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마음이 별반 다르지 않은 듯했다.

[T-9-2]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일

30기가나 되는 외장 하드를 열었다. 2020년 전태일 분신 항거 50주기를 기념해 열린 두 개의 전시, 청계피복노조를 조명한 특별전 〈청계, 내 청춘, 나의 봄〉과 현대미술전 〈따로-같이〉의 자료였다. 전태일기념관은 50주기를 맞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기념 행사 계획안과 전시 구성안을 훑었다. 주제는 ‘연대’였다.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일. 〈따로-같이〉는 ‘공존’을 고민하던 전태일의 정신을 현대 사회에서 찾고자 했다. 인간 중심의 연대를 넘어 유기체와 공존을 다뤘다. 〈청계, 내 청춘, 나의 봄〉은 전태일의 죽음 이후부터 초창기의 청계피복노조를 다뤘다. 당시 노조원들이 어떻게 서로 힘을 모으고 연대했는지가 그 중심에 있다.

〈청계, 내 청춘, 나의 봄〉의 내용은 청계피복노조의 설립부터 시작됐다. 노조를 알기 위해서는 전태일을 먼저 알아야 했다. 새로 공부를 하는 기분이었다. 아, ‘바보회’라는 게 있었어. 밥 굶은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 주고 버스비가 없어 집까지 걸어갔었지. 노동자 실태 설문 조사는 굉장히 논리적이네, 혼자 생각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야. ‘바보회’가 실패했을 때, 그것도 회원들이 흩어져 흐지부지가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다음엔 ‘삼동회’를 만들구나. 노동 조합은, 전태일의 장례식에서 이소선 어머니가 노동청장의 약속을 받아 내서 생긴 것이구나. 머릿속으로 평화시장과 동화상가, 통일상가의 지도를 그리고 평화시장 옥상에 세워

진 노조 사무실을 드나들었다. 지금은 작은 가게들이 입점한 동대문 시장 상가에 당시의 공장 모습을 겹쳤다. 부녀회인 ‘아카시아회’ 회원들의 이름이 익숙해지고 그들의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이어질 때쯤 전태일기념관을 다녀왔다.

코로나19로 인해 기념관이 닫힌 시기에 책의 편집자라는 행운으로 조용히 전시를 볼 수 있었다. 상설 전시는 전태일의 생애를 다룬다. 전태일의 퇴근길을 상상하며 만든 전등길(전태일의 노동자 시절의 주요 사건들을 배치하고 그 아래 원을 밟으면 불이 들어올 수 있게 해 두었다.)과 실물 사이즈의 다락방 등을 재현한 전시는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동적이었다. 상설 전시가 끝나는 지점에서 50주기 기획 전시 〈청계, 내 청춘, 나의 봄〉이 시작됐다. 전태일의 삶을 지나야만 청계피복노조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구조. 청계노조를 알기 전에 전태일을 먼저 알아야 했던 나 같은 사람을 위한 배려였다. 〈청계, 내 청춘, 나의 봄〉은 전태일 분신 후, 노동청장이 노조 설립을 약속한 장례식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전시장은 누런 종이들에 둘러싸여 잠시 과거로 온 듯했다. 체불 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안문의 펜 잉크가 아직 도 선명했다. 손으로 써 조악한 질로 복사한 조합 안내문은 그림에도 당당했다. 방향키로 넘기던 스캔본들을 실제 두께와 질감으로 마주하니 뭔가 모를 감동에 눈물이 조금 났다.

전시는 방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꽤 많은 사료들을 전시했는데, 그것을 좋은 상태로 보존하고 분류해 온 것에서 정성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처음부터 그 중요성을 알고 모아 왔다는 증거였다. 강재영 큐레이터는 전시가 사료의 나열 정도라 많

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지만, 첫 걸음으로 자료들을 한데 모은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청계, 내 청춘, 나의 봄〉은 전태일 사후 청계피복노조의 결성과 소모임, 노조의 활동을 대대적으로 다루는 첫 전시다.

[T-9-3]

과연 내가 전태일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돌아와 다시 자료들을 들여다봤다. 1970년대 중반 발행된 『청계피복노조소식』과 『노보』, ‘아카시아회’의 소모임들이 돌아가며 손으로 편집한 회지를 읽으며, 이소선 어머니의 구금 기록을 읽으며, 또 노조가 했던 실태 조사와 답변들을 읽으며, 근로자들의 위안 잔치와 야유회 사진들을 보며, 조각조각 흩어진 그들의 삶이 입체적으로 세워지는 듯했다. 흩어진 작은 점들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구나. 점이 연대해 선으로 이어지는구나.

그러나 내가 가진 지식이 늘어날수록, 전태일을 둘러싼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는 아닌 듯했다. 과연 내가 전태일을 안다고, 우리나라의 노동 운동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몇 달을 조사했다고 시대의 거대한 흐름과 그 안의 모든 움직임을 알 수는 없지만 말이다.) 무엇이 자꾸 걸을 뒀는다는 느낌을 들게 할까. 좌절스러웠다. 이런 기분은 내 개인적인 것일까? 내 또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전태일 세대를 벌벌 떨게 한다는 내 또래, 1990년대생들은 이 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노조까지는 너무 세부적이니 우선 전태일에 대해 물

었다. 전태일을 알고 있어? 전태일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전태일이란 이름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 그 분신한 사람?” 대개의 첫 마디는 이랬다. 노동 운동을 한 사람이라는 것은 기억했지만 어떤 이유로 노동 운동을 한 것인지, 그의 사후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그로 인해 노동 환경이 어떻게 변한 건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아, 학교에서 배운 것 같은데…, 또는 어디 티비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아…. 흐릿하게나마 기억하는 것에 감사해야 할까? 분신의 이유를 잘 모른 채 “부당한 일들이 일어났겠지” “안 되었다” 정도로 말했다. 상징적인 인물, 노동 이슈가 일어날 때마다 등장하는 이름. 대부분 지난 해의 택배 기사 과로사 이야기를 꺼냈으며 어떤 이는 5년 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건에서 그가 희생된 기억을 꺼냈다.

결국 우리 세대는 전태일을 ‘잘은’ 모르는 것 같다. 더 많은 이에게 묻는다 해도 가슴으로 통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드물 듯하다. 나 역시도…. 이런 마음을 숨기면서 책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가슴으로 전태일을 만나기 위해, 붓 뜬 것만 같은 상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고민했다. 작업을 하면서도, 물으면서도, 내 나뉠대로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파고든 그 끝에서 만난 단어는 이런 것들이다. 분리. 개인주의. 고립. 단절. 객관. 이럴 수가. 전태일 50주기가 이야기하는 공존과 연대와 정반대에 있는 것들이었다.

[T-9-4]

분리된 또는 분리하는 세대

우리 세대 속의 전태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살고 있는지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여기서 우리 세대란 내 나이 또래인 1980년대 말~1990년대 생들, 사회 초년을 벗어난 평범한 직장인을 상정한다.) 우리에게 1970년에 일어난 사건이란 정말 ‘옛날 이야기’다. 1948년에 태어난 전태일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윗세대의 사람이니까. 함께 일했던 이들도 대개 1940년대 생, 당시의 어린 시다였던 분들조차 환갑을 넘어 일흔을 바라볼 테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지 않는 이상 실제 삶에서 그 시절 이야기를 크게 만날 일이 없다. 책이나 영화에서 보는 주제가 된 것이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고문 치사 사건도 영화로 먼저 접하는 정도인데 그 이전으로는 오죽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고 자랐을까.

[T-9-5]

1.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1,2차 산업으로부터의 분리

나는 1989년에 태어났다. 민주화 운동의 성취와 '88 서울 올림픽 개최의 기쁨이 공존했던 시기이자 해외 여행이 막 자유화되었던 때다. 경공업이 저물고 제조업이 흥했다. 경제는 호황에 다름 없었다. 신도시 개발이 일어나 신흥 부촌이 생겨났다. 마을과 마을 개념이 아파트 단지와 단지로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금.

모두가 못 살던 환경에서 벗어나 계급이란 게 정착되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사는 아이들은 다른 동네 애들이랑 놀지 말라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곤 했다. 각자 나름대로 책임감과 소명이 있었던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물결에 휩쓸렸다. 호황에 심취하다 그만 IMF가 찾아왔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한창 자라던 30대 말 40대 초에 IMF를 맞았다. 계급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망한 자와 망하지 않은 자로 나뉘어.

그럼에도 부모들은 아이를 피아노 학원이나 미술 학원에 보냈다. 우리가 태어날 즈음 미국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EQ[emotional quotient, 감성 지수. 1990년 미국의 두 심리학자 교수, 예일대의 피터 셀로베이(Peter Salovey)와 뉴햄프셔대의 존 메이어(John D. Mayer)가 IQ(지능 지수)와 대조해 이론화한 개념이다.] 개념이 우리가 자랄 즈음 한국에도 상륙한 것이다. EQ 계발 붐이 일었다. 좀 더 자라자 친구들은 방과 후에 영어와 수학 학원을 다녔다. 그 시대 부모는 아이를 글로벌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키워야 한다는 ‘강박’도 있었다. 조부모 세대가 농경을 하고 자식들에게 1차 산업의 짐을 주지 않으려고 교육시켰다면, 부모 세대는 2차 산업의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우리를 공부시켰다. 2차 산업의 이미지는 공장과 연결됐다. 그건 산업 역군 세대의 몫이지 자식의 몫이 아니었다. 노동자가 가당치도 않은 노동 환경에서 착취당하는 것은 교과서나 신문 속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학교가 끝나면 학원엘 가는 삶. 아이들은 ‘잘 짜여진’ 환경에서 ‘만들어진’ 교육 과정을 충실히 따랐다. 함부로 의견을 내거나 행동하진 않았다. 주관식보다 객관식이, 소수보다 다수가 편하니까. 교육부에서 토론식 수업이니 창의 활동 시간이니 강조한 것은 별 효과가 없었다.

[T-9-6]

2. 직업의 귀천을 가리게 되었네요—노동과 관리의 분리

앉아서 공부만 하다 대학에 간 아이들은 대학에 가서도 앉아서 스펙 쌓기에 매달렸다. 전자, 화학, 기계와 같이 취업 깡패 과가 아닌 이상 취업 준비는 입시처럼 수년이 필요했다. 학점과 토익은 기본이고 한국사와 영어 말하기, 컴퓨터 자격증은 남들이 모두 가진 것이므로 그 이상을 해야 했다. 전공에 맞춰 이력서를 골라 넣다가 나중에는 붙여만 주면 아무 데나 가겠다며 50개 100개씩 넣었다.

그러나 ‘아무 데나’에는 노동 현장이 아니라 노동을 관리하는 ‘본사’라는 조건이 숨어 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직업의 귀천을 가렸다. 일은 공부가 필요한 일과 필요 없는 일로 나뉜다. (여기서 공부란 수능을 치고 대학에 가서 배우는 그 과정을 의미한다.) 공부가 필요 없는 일의 대표는 ‘노동’이다. 그 중에서도 육체 노동과 감정 노동. 12년+a 동안 책상에 앉아 기를 쓰고 가방끈을 늘인 이유는 무엇인가? 육체나 감정 대신 머리로 노동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가방끈이 짧아도 할 수 있는 일’은 ‘내 일이 아닐 것’이라는 이분법. 아깝잖아. 굳이 몸이나 감정을 써서 일하기엔 공부한 게 너무 아깝지 않아?

그러니 본사에 취직해야 한다. 대기업에 들어가야 하고 차선은 자회사고 계열사다. 중소기업은 최후의 보루다. 마치 지방 캠퍼스로 진학한 아이들이 본캠을 생각할 때마다 약간의 열등을 느끼듯, 계열사에 취직한 아이들은 본사의 이름이 나오

면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꼈다. 마음 속에 저도 모르게 수치화된 단계(계급)을 세우고 그 단계에 못 미치면 자존감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학창 시절 내내 상대 평가의 객체가 되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 안에 평가당하며 자라왔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남이 비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비교하며 올라매는 것. 올라가거나, 등급 시스템에서 튕겨 나가든가 둘 중 하나다.) 회사의 크기 차이에 우열을 두고, 같은 회사라도 본사와 계열사로 나누는 정도니 사무와 노동은 아예 다른 차원이 된다.

나는 우리를 관리자가 되는 법을 먼저 배운 세대라고 정의한다. 노동이 무엇인지 모른 채 관리하는 법부터 배운 세대. 일을 못하면 파트너는 언제든 바꾸면 된다는 자본주의적 마인드도 있다. 노동을 들여 무언가를 만들어 오는 하청을 쉽게 여기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슬프게도 현실이다. 취업 깡패 과를 나와 제조업에 취업한 친구들은 현장과 사무직을 스스로 분리해서 말한다. 수척 비슷한 것도 있다. 현장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너무 잘해 주지 말아라.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관리자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이다.

[T-9-7]

3. 수치로 표현하는 게 가장 편하니까—감정의 분리

나도 이른바 ‘스펙’을 쌓기 위해 한 경제 신문의 대학생 포럼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포럼은 매주 환경 정책이나 무상 보육, 최저 임금 인상 등의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노동 환경 등 기업 윤리에 대한 주제도 왕왕 나왔는데 윤리와 경제의 합의점을

찾기가 참 어려웠다. 대부분 “그 시대에는 다들 그렇게 살았다.” 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선을 그으며 마무리했다. 한 번은 그 선 긋기가 야속해 “여러분의 동생이 무리하게 일하다 사고를 당하면, 혹은 밤낮도 없이 일하면 어땠겠느냐” 반문했다. 그러나 반응은 “윤리에 감정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였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대안이나,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이 먼저였다. 그들의 동생은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듯한 태도.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관적’이어서는 안 되고 ‘객관화’해서 어떤 효용적인 수치로 표현해야 설득할 수 있었다. 윤리의 기준을 찾아야 했다. 윤리를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일까? 마지막 대답은 대략 이랬다. “누군가가 그 시절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 희생은 이미 지난 일입니다. 희생은 필수불가결했던 것이며 시대의 오점입니다.” 우리 세대의 열정페이와 그 시절 못 먹고 살던 여공들 이야기는 달라, 그렇게 거리를 두었다.

산업 구조가 바뀐 것도 감정을 분리하는 데 한몫 한다. 힘든 노동 환경이 이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우리 세대의 것이 아니다. 시대는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중공업에서 첨단 산업과 서비스업으로 넘어왔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IT)로 향하고 있다. 노동 집약적 산업은 개발 도상국으로 넘어갔다. 보이지 않으니 굳이 찾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 악독했던 1960년대 동대문 공장들의 사장과 똑같은 수법으로 후세대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똑같은, 아니 더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바다 건너 일이니 더 먼 얘기다.

「컴퓨터로 장시간 일하지만 몸을 써서 일하는 것은 아니니 근무 환경이 다르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팀장이 다섯 번 포맷을 바꿔 오라 한 보고서로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지만 노동 열사가 될 정도는 아니다. 사장이 퇴근하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밤이든 무엇이든, 말없이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만 알았던 당시에 비해서 야근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노동 환경은 나아졌다. 그러니 “옛날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가 성립된다. 분야가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지만 사실 메커니즘은 같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교하게 부품처럼 돌아가는 시대, 우리는 부품임에도 겉으로는 안락하여 노동자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도 노동자이면서 말이다.

감정의 분리. 수치화할 수 없는 것도 수치화하는 것. 나는 이것이 직접 노동이 아닌 관리자로서 노동자의 노동을 바라보는 태도라는 느낌을 받았다. 나와 남의 감정을 분리하고, 수치화한다면, 어떤 공감을 할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만 세상을 본다면... 전태일이 그래서 설문 조사에 매달렸구나, 싶었다. 그런 수치가 필요한 관리자를 위해서. 눈으로 몇 %가 몸이 아프고 몇 %가 제 때 쉬지 못하는지, 최저 생계를 위해 몇 %의 임금 인상이 필요한지...

[T-9-8]

4.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겠습니다—일과 삶의 분리

「각자가 분리되고 과거와도 분리되고 감정도 분리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하다. 받은 만큼 주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하다. 더 선호하는 것은 안 받고 안 주기. 받으면 받은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니까. 인간 관계에 필히 동반되는 것이 주고받음인데, 이 상호 관계에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니까. 볼 사람 못 볼 사람 부대끼며 산 과거에 비해 역치(閾値)[생물체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나타내는 값]가 낮아진 것이다. 회의에서 의견을 내는 것도 떠맡을 책임에 부담스럽다.

사람이 직접 발로 뛰고 움직여야 했던 사무직도 이제는 대면하지 않아도 가능해진다. 파티션을 세운 사무실은 학생 시절 독서실 책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일부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파티션 없는 책상과 자유 좌석제를 시행하지만, 여전히 다수라고 할 수는 없다. 일은 메일로 대개 해결하고, 같은 회사 사무실에 있어도 메신저로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하고, 같이 먹은 밥값도 메신저가 알아서 n분의 1로 나눠 송금해 준다. 상사나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는 것 또한 더 이상 의무가 아니다. 도시락을 싸 오거나 책상에서 간단히 먹는다. 회식은 빠지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다.

혼일, 혼밥, 혼술, 혼자 하는 것이 당연해진 세대(EQ 세대의 말로가 이런 것이라니...)에서 우리는 어떤 연대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떤 공감을 할 수 있을까? 밥 먹으며 유튜브를 본다. 반려 동물을 키운다. 식물을 키운다. 위로 공감 에세이를 읽는다. 오늘도 수고했어, 천천히 가도 괜찮아, 잘 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주는 존재가 필요하다.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을 하나씩 지우고 나니 점점 고립이 된다.

[T-9-9]

5. 소비되는 숭고함— 정치와 삶의 분리

“사실 좀 지겨워.” 전태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충격적이게도 어떤 이는 이렇게 답했다. 어떤 사람은 피곤하다고도 했다. “숭고한 것은 알지만 말이야.” 덧붙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전태일 정신이 나오는데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정치인이나 강성 노조, 이익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한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소비되는 숭고함.

여기에서 우리 세대가 노동 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다. 노동 조합. 흔히 귀족 노조, 강성 노조라고 불리는 몇몇 노조들이 ‘굳이’라고 할 정도의 일들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피로감을 느낀다. 분명 부당한 일을 당하면 발벗고 나서 줄이 들임을 알지만, 때로는 지나친 요구를 해 동조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또한 그러한 행위가 모든 노조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어쨌거나 노조가 내 삶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두 해 전 어느 IT 대기업에 노조가 생겼다. 회사에 다니는 친구는 “왜?”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연차도 휴가도 너무 자유롭고, 재택 근무도 출장도 너무 유연하게 쓸 수 있는데, 심지어 연봉 협상은 매년 잘 되는데 왜 노조가 생긴 거지? 다른 회사를 생각하면 이미 업계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직이 잦은 IT 업계에서 대기업의 연봉이나 복지는 직원의 생존을 좌우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측에서 직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제안하는 오퍼(offer)란 생각이 강하다. 이들에게 이직은 지금 회사가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오퍼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쉬운 쪽은 회사다. [물론 본사와 자회사, 계열사마다 이해 관계가 다르고 또 회사 간 위계에 따라서도 사원 대우가 다를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부당한 일이 일어나는지 본사와 계열사 직원 사이, 또 계열사와 계열사 직원들 사이에 공유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어쩌면 서로 알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알려진 일들 역시 전 사원에게 와닿는 사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나의 노조로 행동하기에는 직원들 스스로가 본사와 자회사, 계열사, 손자회사를 같은 회사로 느끼지 못한다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지인은 자신의 회사 노조가 “우리가 라이벌 업체보다 많이 버는데 왜 인센티브는 적게 주느냐”라고 하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고 했다. 성과급이 기대에 못 미쳐 노조는 파업에 들어갔다. 이미 회사의 인센티브는 월급의 1,700%였다. 돈이야 더 받으면 좋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 학교에서 노동 운동을 배운 우리 세대가 실제 노동 조합이 「근로 기준법」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데 힘쓰는 것을 보며, 그것이 반복될 때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치계도 비슷하다. 다들 나서서 ‘전태일 정신을 기려야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 연대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정말로 마음 깊이 그 정신을 찾고 싶은 것일까? 부모님 세대는 혀를 끌끌 차면서도 TV를 켜고 신문을 읽지만, 우리 세대는 앞뒤가 다른 사람들을 내 삶에서 분리해 버린다. 전태일의 희생으로 숭고하게 시작된 노조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그 때문에 다른 건 강한 노조의 뜻이 드러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질려 한 발짝씩 멀어지는 우리 세대를 보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연대와 공존은 이렇게 조금씩 소비되

고 소비되어 그 빛을 잃어 버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한 사람이 목숨을 바치며 꿈꿔 온 미래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 텐데….

[T-9-10]

우리 세대의 점은 선이 될 수 있을까

여기까지가 내가 본 우리 세대의 특징이다. 글을 쓰면서 충격을 받았다. 나 역시 이러한 관리자적인 마인드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알게 모르게, 나는 아니라고 믿으면서 말이다… 그 것이 나와 전태일 사이의 거리감이었구나. 연대와 공존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하고 싶은 분야로만 취사 선택했던 것 같다. 반성했다. 우리 세대의 점들은 지난 시절 조합원들처럼 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실은 현대 미술 기획 전시 〈따로-같이〉를 보는데 우리 세대의 분리와 고립이 느껴졌다. 우리의 연대는 과연 동물과 식물과 상품으로 대변되는 것일까. 세대가 자처한 고립. 일방향 연대. 상설 전시가 가장 동적으로 느껴졌던 건 비슷한 맥락일지도 모른다. 〈청계, 내 청춘, 나의 봄〉에서 느껴지던 초창기 조합원들의 생기는 또 어땠고. 등산 가는 대학생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조합에서 산으로 야유회를 가니 너무 좋았다는 소녀 같은 마음, 한 달에 하루 있는 일요일 휴일을 조합 모임에 쏟은 순수한 마음. 체불 임금을 못 받는 시대를 위해 조합 언니가 직접 사장에게 가담판 지은 그 담대함. 농성 끝에 8시 퇴근을 결국 이루어 냈을 때를 이야기하며 다시금 감격에 벅차 하던 그 목소리. 아카시아회 회원들의 구술 녹취를 다듬으며 감동이 북받

쳤다.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자신의 십대 시절을 떠올리며 “우리에게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있구나, 처음으로 알았어요.” “노조를 알게 되고, 여럿이 모여 배우고, 대화하고, 봉사하고, 그 속에서 배려를 많이 배웠어요. 일을 할 때는 스쳐 지났던 그런 인간적인 배려요.” 할 때의, 그 사람 냄새가 나는 이야기. 그런 시절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우리 세대는 이미 너무 편안하고, 가진 것도 많고, 힘들면 그만두면 되고, 마음만 먹으면 기회가 많아서, 그 때만큼 절박한 마음이 다시 들진 않을 것이다. 결핍에서 비롯한 열망이 그만큼 타오를 수 없는 시대.

전태일과 청계피복노조의 이야기를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추억 이야기, 아름답고도 안타까웠던 시절의 이야기로만 가져가면 영영 기억 속에 잠들어 버릴 것이다. 과거에 머무는 것이니까. 이 시대에 유의미한 것을 던지려면 지금 세대를 파고들어야 한다. 그러나 전태일이라는 상징 자체가 삶에 스며들기는 쉽지 않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삶에서 문득 문득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다시금 말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버렸고, 분초 단위로 업무를 처리하며 숨가쁘게 일하는, 또 무엇이든 분리가 일상인 우리에게 남의 고통은 쉽게 들어오도록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만 나아가면 삶 속에 전태일을 떠올릴 요소는 아주 많다. 그 시절의 이야기를 기억으로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50주기의 주체처럼 ‘연대’로 알려야 한다. 삶 속에서의 연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태일의 이미지는 많이 소비되었으니, 굳이 노동과 결부시키지 않아도 된다. 전태일의 정신을 되찾자, 되새기자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 함께 나누는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연대. 공존. 이소선

어머니가 배 끓은 여공들에게 밥을 지어 먹였듯, 여공들은 명절에 아들 없는 어머니가 쓸쓸하실까 찾아와서 말동무를 해 드렸듯, 잘 지내고 있을까, 내가 무얼 해 줄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하는 마음. 계산하지 말고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것.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밤낮 야근하는 친구에게 보내는 치킨 쿠폰이 전태일이 전내던 풀빵과 같다. 육아 휴직을 내는 것이 두려운 친구에게 용기를 주는 것, 부당한 상사 이야기를 몰래 본사에 찔러 주는 것, 돕고 싶은 청와대 청원에 한 표 누르고 주변에도 청원을 요청하는 것. 1970년대의 절박함과 는 사뭇 다를지언정 건네는 마음의 출발은 같다. 다만 대가 없는 연대를 위해서는 아직 깨야 할 벽이 많아서, 모두가 계산 않고 빚장을 열 수 있게끔 천천히 독려해야 할 것 같다. 어려운 시대다. 글로벌, 디지털, 새롭게 등장하는 키워드에 세계는 팽창하지만 정작 사람은 고립되어 가니까. (부모님이 바라던 ‘IQ와 EQ를 겸비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는 어디로 간 걸까. 정말로 우리는 감성마저 ‘배운 것’에 그치고 만 것일까….)

고립은 어떤 것을 내 삶의 일부로 집어 넣는 데서 끝난다. ‘상징’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태일이 이 시대에 살아남을 방법 같다. 우리 세대에선 전태일만큼 멋진 정의의 사도가 나오진 않겠지만, 대신 그 멋진 마음을 조금씩 나누어 하나하나 심을 수는 있다. 전태일의 정신은 당신의 삶과 분리된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당신이 전내는 작고 사소한 마음 하나하나가 그의 정신이라고. 그의 마음이라고. 전태일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도 당신처럼 그렇게 했을 거라고. 내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 그러다 보면 조금씩 번져 나갈 것이다. 빠르게 바뀌고 잊히는 시대라고 해도, 우리 세대의 삶이 개인으로 분화 분절되어 흘러가더라도, 결국

전태일 50주기 포럼 (2020년 11월 10~12일, 전태일기념관·서울시청 시민청) ↓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전태일의 삶을 학술적으로 고찰하고(지난 50년), 현 세대가 직면한 노동 안전들을 나누며(현재), 노동의 시대적 의미와 미래를 위한 과제(다가을 100년)를 조망한 국제 포럼이다. 서울시와 ‘전태일 50주기 범국민 행사 위원회’가 개최한 ‘우리모두 전태일문화제’(2020년 10월 14일~11월 15일)의 주요 행사중 하나로, ‘전태일 이후 50년—함께 고민하는 노동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 활동가와 전문가, 학자들이 모인 가운데 11월 10~12일 전태일기념관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렸다. 포럼은 오전/오후로 나누어 사흘 동안 총 6회로 진행됐으며, 회차별로 각기 다른 단체에서 발제와 토론을 주관했다.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10일 오전(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주관)에는 ‘여성 노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가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노동 위기 현황(저임금 필수 노동, 취업 기회가 사라진 청년층, 자녀 돌봄 부담 가중)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으며, 박현미(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노동 조합의 여성 연대 전략’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여성 노조 조직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 10일 오후(노회찬재단 주관)에는 ‘함께 고민하는 노동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노동자의 실상을 알리는 시간(봉제 노동자(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청소업 종사자(신희주 가톨릭대 교수), 돌봄 노동자(박고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부산 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을 가졌다. 김윤철(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회자되나 정작 ‘노동 없는 민주주의’라는 점을 지적하며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보 정당의 성장을 발판으로 한 정치적 실천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11일 오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관)에는 ‘전태일 삶과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가 전태일의 삶과 투쟁이 노동 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 한국의 노동 운동은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진단했다. 노광표(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한국 노사 관계와 노동 조합 운동, 현재 노동 조합의 과제를 이야기했다. | 11일 오후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관한 ‘민주 노동 대토론회’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의 취약성, 분절된 한국 노동 시장과 노사 관계의 악순환 등 현 상황을 진단하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들을 짚었다.

12일(오전·오후 모두 ‘전태일 50주기 범국민 행사 위원회’ 주관)은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해외의 노동 현실을 공유하고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해 돌아 봤다. | 오전에는 사스키아 사센(Saskia Sassen, 컬럼비아대 사회학과 교수)과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 이사장)를 초대해 ‘변화하는 자본주의와 노동의 미래’에 대한 특별 강연을 열었다. 사스키아 사센은 ‘전 지구적 세계가 지역으로 분화될 때’라는 타이틀로 코로나19로 인해 전 지구적 여행이 멈추고, 외부와 격리되며 오히려 세계가 지역 중심으로 변해 가는 이 위기가 오히려 지역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는 단초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김금수는 노동 운동사의 관점에서 본 한국 노동 운동의 미래를 다뤘다. | 오후에는 ‘글로벌 공급 사슬 밀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에드워드 웹스터(Edward Webster, 비트바테르스란트 대학교 명예교수)가 ‘인간적이고 문명화된 글로벌 공급 사슬이 가능한가’ 화두를 던지며 글로벌 노동 운동의 연대에 관해 피력했다. 토론 발제는 ‘아시아 한국 투자자들의 민낯을 돌아본다’는 주제 아래 아시아 현장 활동가들을 초청해 이루어졌다. 베트남 현지 한국인 소유 공장들에서 발생하는 파업 현황과 그 이유(즈엉 수안 히우 베트남노총 국제국 선임부장), 인도네시아 SKB 봉제 공장에서 벌어진 임금 강탈과 더러운 화장실(샤리프 아리핀 인도네시아 노동자원센터 연구원) 사건들을 통해 글로벌 공급 사슬의 중상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경영 현실을 고발했으며, LG 화학 비사카파트남 공장의 독가스 누출 사건으로 드러난 한

진실과 진실한 마음은 통하게 되어 있다. 나는 믿는다. 전태일의 이름을 남기려 애쓰지 않아도 그의 정신을 가지고 연대를 진실로 실천하고자 하면, 그의 이름은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시대의 전태일은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된다. 내가, 우리가 그의 일부다.

[T-9-11]

‘글로벌’ 시대의 노동

이 글은 우리 세대에 대한 비판이자 윗세대에 대한 비판이기도, 지금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책을 편집하며 든 소회를 쓰기로 한 글인데, 우리 세대 이야기가 길어져 여러 다른 주제들을 빼게 되었다. 그런데 꼭 하나 마음에 남는 아쉬운 내용이 있어 덧붙인다. ‘글로벌’ 시대의 노동에 관해서, 마음만 먹으면 다른 나라로 떠날 수 있고, 지구 반대편 나라의 일도 당일 속보로 알게 되는 시대. 우리 시대의 연대라면 이런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겠구나, 개인적 경험으로 연대와 확장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세대는 넓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연대해야 하는구나 생각도 들었다.

‘전태일 50주기 포럼’(🔊-[T-9-0]) 자료를 읽으며 많이 놀랐다. 동남 아시아의 공장 노동 현실에 관해.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를 제조국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제조의 방법이 어찌 일어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인건비가 싸겠거니. 그런데 1960년대 1970년대 평화시장 여공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정확히, 똑

국기업의 노사 관계와 산업 안전 상태(라그후람 T.C 인디아 화학제약연합노조 위원장)를 다뤘다. 이어 말레이시아 이주 노동자 문제(브루노 페레이라 말레이시아 전자산업 노조 서부지역 사무처장)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및 처우(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상임 활동가)에 대한 발제를 통해 각국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 안전도 수준 위로 올리며 3일간의 포럼은 막을 내렸다. ●

참고 사례

2019년 『한겨레』에서 연재한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가 참고할 만하다. 아시아 3개국 9개 도시를 찾았다. 2만여 km, 지구 반 바퀴 거리를 누비며 129명의 삼성전자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설문 조사한 이 기획은 “언론사 가운데 국내외를 통틀어 최초의 시도”였다. 그 1편 ‘청년 착취 : 아시아 청년의 피땀눈물로 쌓은 ‘초일류 삼성’」(김완·옥기원·이재연 기자, 『한겨레』 2019.06.18.)에서는 그 현실을 다음과 같이 고발하며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분석한다. “[...] 전광판을 보니, 1인당 생산 목표량 1,600대를 알리는 불이 들어왔다. 작업명 ‘1200’이라 불렀던 갤럭시 휴대폰을 13초당 1대씩, 12시간 내내 조립해야 전광판은 꺼졌다. [...] 삼성 공장 노동자들은 각국의 노동법이 정한 기준(8시간)이 아닌 공장마다 설정한 ‘택트 타임’(tact time :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일하고 있었다. 택트 타임은 삼성 공장의 매일이 고탐의 공포로 채워지는 이유다.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구형 갤럭시를 만드는 노동자는 하루 1,600대를 조립해야 한다. 이런 택트 타임 관리는 삼성이 반도체와 휴대폰 분야에서 세계 최고

를 유지하는 비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반도체와 휴대폰 제조업은 노동자 한 명이 소형 부품을 배열해 놓고 이동 없이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 집약적 단순 조립 공정이 주를 이룬다. 택트 타임은 노동 집약 산업에서 극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앞에는 전광판을 두어 숫자와 시각으로 실시간 압박하고, 뒤에 선 관리자는 고탐를 질러 청각적 긴장감으로 신경 줄을 곤두서게 한다. [...] 아눔(가명, 21)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관리자에게 하루 1,600~1,700개에 이르는 휴대폰 조립을 할당받고, 전광판에 숫자가 줄어드는 박자에 맞춰 일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1년 동안 단 하루의 휴가도 쓰지 않고 일했다. 관리자의 눈에 띄어 정규직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견습공 가운데 약 5% 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 공장은 수도에서 40~50분 떨어져 있어 출퇴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삼성 버스뿐이다. 삼성 버스는 매일 새벽과 밤, 정해진 시간에 전용 정류장에만 쏜다. 삼성 버스를 통해서 출퇴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버스 시간표로 구성된다. 정해진 업무량을 끝내도 버스 시간 전까지 공장을 떠날 수 없다. 지각과 조퇴는 원천 불가능하다. [...] 노동단체 연구원은 통근 버스에 대해 ‘몇몇 글로벌 기업도 삼성을 따라 도입하기 시작한 독특한 시스템으로 출퇴근 버스에 의존하는 노동자들은 잔업을 빨리 끝내도 버스 시간에 맞춰 더 일하게 된다. 공장에선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야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다. 노동자를 시스템에 순응하게 하는 매우 악랄한 방법이자 노동자의 상상력을 박탈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 주민들은 삼성이 버스와 기숙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원거리 지역 출신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삼성 공장 바로 앞에서 노동자들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노점을 운영하는 한 박닌 지역 주민은 ‘삼성은 공장 근처에 사는 박닌 사람은 뽑지 않는다. 박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 아시아 3개국 삼성전자 공장 노동자들은 자국의 최저 임금에 못 미치거나 조금 웃도는 돈을 받고 모든 시간과 삶을 삼성에 바치고 있었다. 삼성은 병에 걸릴 확률도, 몸이 아플 확률도 적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짧게 쓰고 버린다. 인도 견습공의 경우 평균 월급이 8,400루피(14만 1,912원)에 불과했다. 준수런 노동자 기준 월 최저 임금 1만 5,400루피(약 26만 2,000원)

같이, 그것도 한국 사람에 의해 재현되고 있었다. [🔊-(T-9-1)] 구술 녹취를 읽으며 특히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수백 공장이 들어선 평화상가에 화장실이 참마다 하나가 있었는데, 그 화장실이 유료라 소녀들은 화장실을 가려고 충무로의 공원까지 걸어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소녀들이 가기에 불편하고 더러운 화장실을 쓰는 이야기를 했다. 똑같이 체불 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선진국 사람들이 먼저 우리 나라에서 공장을 세워 수출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그 후로 제3국의 노동자들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의 소비 이면에, 누구나 어두운 현실은 돌아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연대라면 과연 우리의 소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의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똑같이 누군가에 의해 옷을 헐값에 만들어서 팔았듯이 그 사람들이 이제 똑같이 우리에게 의해 헐값에 무언가를 만들어서 파는데 그걸 외면하면서 어떻게 노동 운동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에 한참 못 미친다. | 삼성 공장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온 베트남의 듀엔과 인도의 모디는 각각 다른 동료들과 함께 산다. 견습공 신분인 모디는 잔업 수당을 합쳐 한 달 9천 루피(약 15만 원)를 받는데 그 돈으론 침대 없는 방 월세도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 동료 2명과 함께 월 5천 루피의 월세를 나눠 낸다. 그가 출근하고 나면 그가 쭈그려 잠을 청했던 바닥에서 주야 맞교대를 끝내고 돌아온 동료 가 잠을 잔다. 모디는 일으켜지지 않는 몸을 추슬러 출근할 때 종종 삼성 면접관이 물었던 질문을 떠올린다. 면접관은 ‘아버지는 무얼 하시고, 가정 형편은 어떠냐’고 물었다. 모디는 자신이 가난했으니까, 더 절박하게 일할 테니까 뽀뽀

을 거라고 생각한다. [...] 한국제 노동 단체 관계자는 [...] ‘이제 국제적 관점에서 ‘노동의 삼성화’ 현상이라고 불려야 한다. 삼성은 그런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국가만 찾아다닌다.’고 지적했다. ‘노동의 삼성화’는 노동자를 권리가 없는 ‘값싼 인간’으로 치부하는 구시대 경영이다. 1970~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 썼던 방식을 개발 도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삼성전자 한 해 매출은 243조 7,700억 원, 영업이익은 58조 8,900억 원(2018년 기준)에 이른다. 휴대폰 100조 6,800억 원, 반도체 86조 2,9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금도 삼성 공장의 어떤 노동자는 ‘돈이 없어 저녁을 굶는’ 생활을 하고 있다. [...]” ●



한미사 재단사 시절, 회사 야외에서 전태일.



1969년 초, 청옥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남산에 오르던 날 (맨 왼쪽이 전태일).



바보의 창립 즈음, 평화시장 옥상에서 건대일.



평화시장에 서다로 갖 취직했을 때 동료이다. 미상 보조들과 함께(왼쪽 왼쪽에서 세번째가 전태일), 1965년경.



한미사 공작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엔.오른쪽이 전태일) 1966년.



평화시장 화장실 앞에서 재단 보조와 함께 (왼쪽이 전태일).



1980년대 후반 평화시장 동포들과 함께(왼쪽에서 두 번째가 진태일).



중부시장 채판사로 일할 때의 전태일. 1968년경.

● 2020전태일 50주기 특별 기획전 [청계, 내 청춘, 나의 봄] ● The Exhibition to Commemorate the 50th Anniversary of Chun Taeil's Self-immolation | 주최 | 서울특별시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 기획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 전시총괄 | 이수호 오동진 | 전시 기획 및 진행 | 유현아 강재영 김지영 | 자문 및 자료 제공 (가나다순) | 김영문 박계현 박원섭 박태숙 유정숙 이숙희 이순자 이승철 임현재 정선희 정인숙 조미자 최종인 | 유물 출납 및 보존 처리 | 양윤미 오신혜 천아람 | 전시 홍보 진행 | 강승연 | 전시 연계 교육 진행 | 유충만 | 전시 연계 프로그램 진행 | 이준하 | 공간 디자인 및 시공 | (주)새로움아이 공혜림 백운규 안나 | 그래픽 디자인 | 진공(genegong) 박지연 | 영상 촬영 및 편집 | 만경 허철녕 / 케이브 김성현 | 유물 사진 촬영 | 한국문화재사진연구소 한정엽 / 수류산방 이지웅 | 영문 번역 | 이지연 | 행정 지원 | 김영선 이성희 | 현장 지원 | 박병구 김연옥 윤성우 허길희 |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Chun Taeil Memorial] | [03191]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05 [관수동 152-1] [전화] 02.318.0903~4 [www.taeil.org]



● 도록 [청계, 내 청춘, 나의 봄] 청계피복노동조합 아카이브 ❶ ● The Exhibition Book to Commemorate the 50th Anniversary of Chun Taeil's Self-immolation Cheonggye Pibok Labor Union Archive ❶ | 초판 01쇄 2021년 03월 05일 | ISBN 979-11-970-5383-2 03330 | Printed in Korea, 2021 | Produced, Edited, Photographed, & Designed by SuRyuSanBang | ● 수류산방 樹流山房 SuRyuSanBang | 등록 2004년 11월 5일(제300-2004-173호) | [03054] 서울 종로구 팔관길 1-8 [팔관동 128] | T. 82.(0)2.735.1085 | F. 2.(0)2.735.1089 | 프로듀서 박상일 | 편집장 심세중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朴宰成 + 박상일 | 이사 김범수 박승희 최문석 | 편집팀 전운해 조연하 | 디자인 · 연구팀 김나영 | 사진팀 이지웅 | 번역 문가용(Guy Moon) | 인쇄 효성문화 (T. 82.(0)2.2261.0006 박관열)